

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채권전략 안예하 yhahn@kiwoom.com



지난주 동향

지난주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. 주 초반부터 지난주 3 분기 GDP 성장률 부진에 대한 부분을 되돌리면서 상승 출발 후 주중 상승폭을 소폭 되돌리기도 했으나, 전반적으로 미 대선과 미 FOMC, 미 고용 보고서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큰 변동 없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보였다. 국고 3 년물은 전주 대비 6.2bp 상승한 2.942%, 국고 10 년물은 3.0bp 상승한 3.090%에 거래 마감했다.

주 초반 이창용 총재가 3 분기 GDP 성장률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고, 환율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생겼다고 주장해 11 월 연속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주 초반부터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. 3 분기 GDP 성장률이 분기 대비 0.1%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형성되기도 했다. 하지만 이창용 총재의 발언으로 11 월 연속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다.

대외 금리는 상승 압력을 이어갔다. 미국채 금리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하면서 상승 압력을 보였다. 주 중 9 월 JOLTs 보고서 상 구인건수가 744 만 3 천 건으로 2021 년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고용시장 둔화로 해석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으나,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며 재정 적자 및 국채 발행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금리 상승세를 이끌었다. 여기에 미국 10 월 ADP 민간 고용이 23 만 3 천 명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,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은 2.8%로 시장 예상을 하회했지만, 소비는 예상보다 견조하게 발표된 점 또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.

한편, 주 후반 발표된 미국 10 월 고용보고서는 신규 고용자수는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했으나, 실업률은 4.1% 수준을 유지했고, 허리케인 등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. 발표 직후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,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미국채 10 년물 금리는 4.3%를 상회했다.

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	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
국고 2 년	2.960	7.2	11.4	-28.2	미국채 2 년	4.205	10.1	56.4	-4.5
국고 3 년	2.942	6.2	11.7	-20.3	미국채 3 년	4.185	13.5	63.6	17.6
국고 5 년	2.997	4.7	10.1	-15.8	미국채 5 년	4.225	16.2	67.2	37.8
국고 10 년	3.090	3.0	9.5	-8.5	미국채 10 년	4.384	14.4	60.3	50.5
국고 30 년	2.930	0.8	7.0	-15.0	미국채 30 년	4.578	7.9	44.8	55.0

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	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
통안 91 일	3.050	-0.7	-7.1	-41.1	여전채 AA+	3.386	1.6	0.0	-23.4
통안채 1 년	2.843	1.0	2.1	-54.4	여전채 AA-	3.544	1.8	-0.8	-38.8
통안채 2 년	2.950	6.9	10.5	-31.5	회사채 AA+	3.437	0.3	-1.6	-14.3
공사채 AAA	3.194	0.2	-2.3	-12.0	회사채 AA-	3.516	0.3	-1.6	-17.0
은행채 AAA	3.234	-0.0	-1.1	-18.9	회사채 A+	3.828	-0.3	-4.0	-53.1

*통안채 제외 3 년물 기준, 국고 대비 스프레드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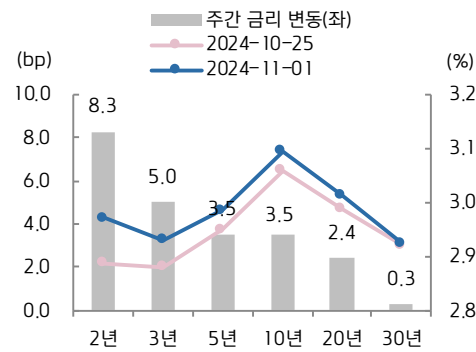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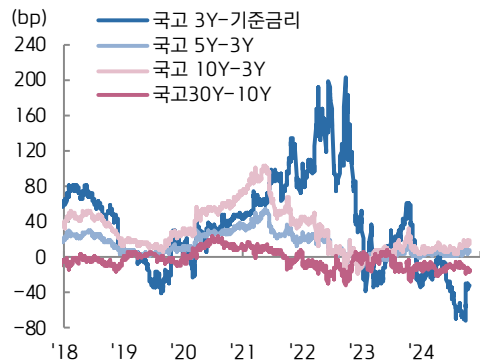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수익률 곡선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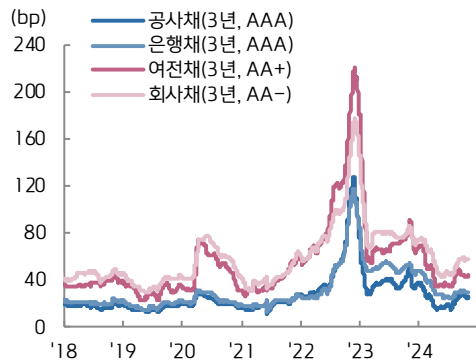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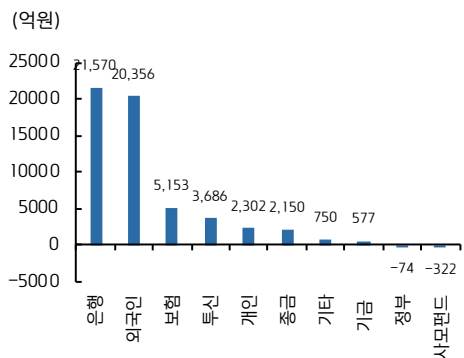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회사채 스프레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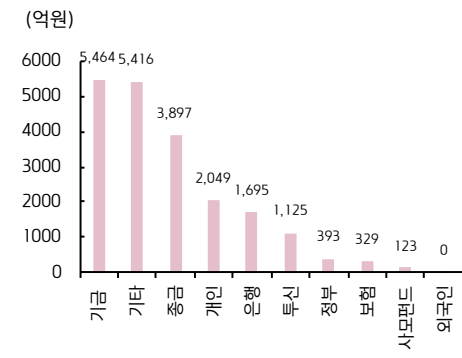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국채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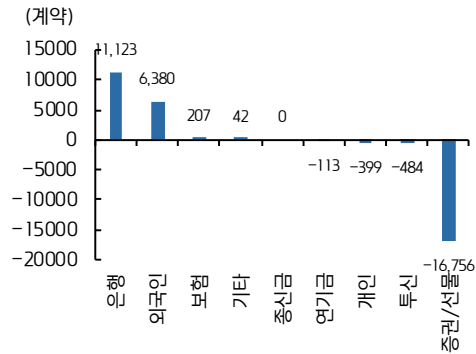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회사채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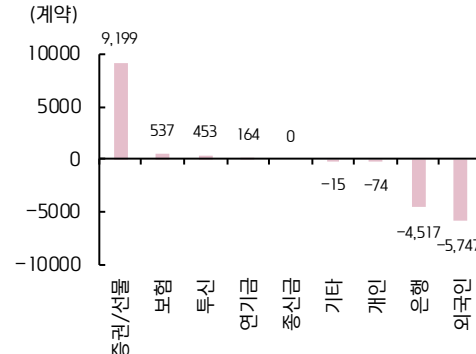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TB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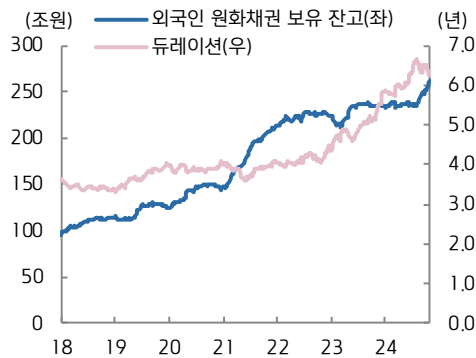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LKTB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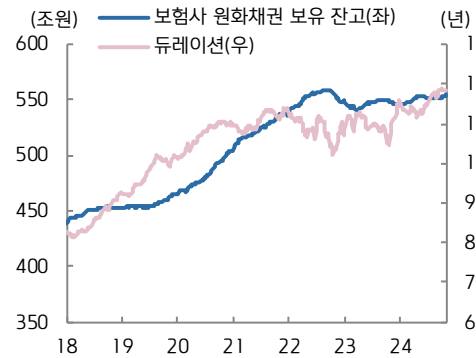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외국인 원화채권 수급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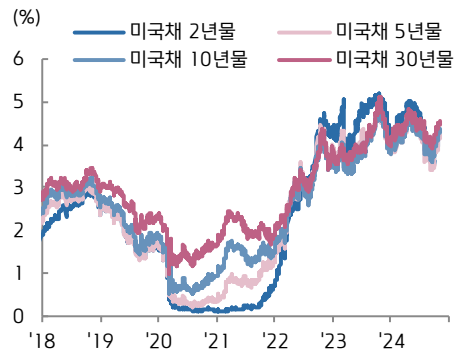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보험사 원화채권 수급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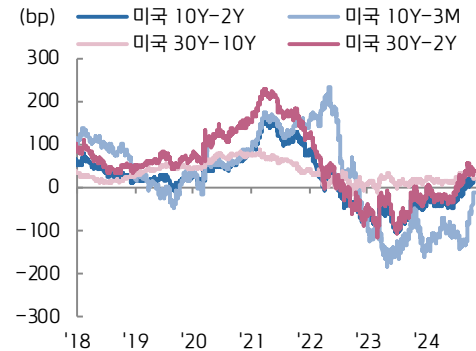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채 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